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

어두운 밤, 별빛이 하늘과 강물에 번져나가는 '톤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풍경화가 떠오른다. 고흐의 아픈 삶이 풀어진 화폭은 고통의 에너지가 예술로 생성되는 비의를 증명해낸다. 자신의 이름을 '매우 쓰디 쓴'이란 뜻의 러시아어 '막심 고리키'로 짓고, 아픈 삶을 소설로 써낸 작가도 있다. "토 악질하듯이 괴롭게 고풍됨을 지며"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절절한 박완서의 고백도 있다('부처님 근처'에서).  
아름이 지어낸 작품들이 저릿저릿 다가오는 나날을 맑은 이들이 살아내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살아내는 것 또한 쓰니, '그 힘으로 글을 쓰자'란 각오로 자판을 두드린다. 마침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 '조울'은 아픔의 속내를 뒤집어낸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오월이면 꽃

## 우린 왜 '고도'를 기다릴까?

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수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 이어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울 한번 해 주세요." 이런 곡을 지어낸 한돌(61)의 아픔의 에너지가 와 닿는다. 처절하게 깔리며 절규하듯 외치는 한영애의 리듬은 이 세월에 공명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아픔 뒤에 깔린 권력자와 어른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진면목이 아이들 앞에 들켜버렸다.  
"기다리라."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한 아이들은 뭤다 핀 꽃으로 지나 어안이 병병하고 힘들다. 나이를 벗어난 평등 사상도 없고, 돈보다 생명을 위한 박애심도 없는 기이한 위계질서와 기회주의에 급급한 어른 무리에 묻혀 또 하나의 어른으로 살아내는 것도 숨이 막혀온다.  
어디에서건 아이들을 만나면 미안하다. 그저 같은 시공간에서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책무라는 생각도 든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산울림 소극장에서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불현듯 왜 한국판 '고도를 기다리며'가 세계적인 인기받는 무대인지 퍼뜩 다가온다.

이 작품을 쓴 사무엘 베케트는 옆모습이 매처럼 예리해 보이는 아일랜드 출신이다. 아일랜드는 '커미트먼트'(알란 파커)라는 영화에서 그러내듯이 약소국 특유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나라이기에, '유럽의 흑인'으로 불릴 정도이다.  
베케트는 아일랜드를 떠나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로 프랑스에 머문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지극히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지만, 우매한 다중의 막막한 현실감이 절절하게 전해준다.  
실존철학의 대가 사르트르는 이 작품이야말로 "최초의 완벽한 희비극"이라고 격찬했다. 프랑스의 보수 일간지 '르 피가로'에서도 이 무대를 보고 "광대들이 공연하는 파스칼의 명사록"이라는 유려한 찬사를 바치기도 했다.  
문학사에 기록된 걸작이기에 읽어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는 오래전 이 작품을 읽었다. 왜 이 남자들은 고도를 기다릴까? 답답해 보였다.  
그러다가 4년 전이던가? 서울 한구석 산울림에 가서 임영웅 연출로 전개되는 연극을 보며 그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배치된 황량한 무대를 마주했다. 단조로운 반복을 구성하며 우리

의 사회사와 역사적 질곡이 나의 삶과 오버랩되는 아찔했던 감흥이 아픈 4월을 보내며 강력하게 되살아났다.  
반복적인 일상적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도(Godot)는 신을 뜻하는 영어의 갓(God)과 프랑스어의 디유(Dieu)의 합성어란 해석도 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희망과 꿈을 가진 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 줄 초월적 존재, 막강한 권력이 바로 그 기다리는 고도일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 그런데도 고도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가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라는 블라디미르의 대사가 잔인한 4월, 먹먹해진 귀를 찢으며 공명해 나다. 막을 막을 습관, 관료주의에 대한 낙담과 무심함, 악의 평범성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도 솟아오른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울고 있고, 떠나는 세상을 "이번엔 잊지 말자"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과거 그랬듯이 다시 잊은 채 반복될까 두렵다. 모든 반복에는 차이가 있어야 구조된다. 이번엔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도를 기다리는 데 쓰디 쓴 에너지가 스스로 고도가 되는 변화와 연대의 힘으로 분출할 것을 기원한다.

기고



이당재  
시인·평론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침몰에 어안이 병병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세계경제 10위권, 선진국 문턱 운운이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인가? 사고 공화국 딱지가 붙었던 때 이후 지금까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나아진 게 없다. 무슨 일이 터지든 왓자지껄하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도도야비타를(徒勞阿彌陀佛)이다. 총체적 부실하다 너 나할 것 없이 기분이 안 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스프츠 피겨 여왕 김연아의 좌우명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다. 이 말은 원래 유대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쉬(Midrash)'의 다윗 왕 반지에서 나왔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에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 다윗 왕이 자신의 반지에 새겨 넣어 지냈다. 김연아는 이를

##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겨울삼야 성공과 실패를 가슴에 새기며 수천 번의 피나는 훈련을 거듭 쌓아 세계정상에 올랐다. 김연아는 그가 받은 황홀한 찬사도 어느 순간 덧없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그는 그 억울함을 미소로 담아 버텨낼 만큼 답답했다. 그런 지혜로움이 바로 우리 한국의 딸이 해낸 쾌거요 자랑이었다.  
황홀한 승리로 처절한 실패도, 치욕적인 좌절도 목숨을 앗아간 뜻밖의 사건사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을 가슴에 새겨 저간의 실패를 와신상담(臥薪嘗膽)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숨 막힐 정도의 위급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가 있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승객 안내를 담당할 스물둘의 여성무원 박지원(22)양은 배를 탄지 이어 겨우 1년 반. 그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치 못한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의연했다. 선실을 오르내리며 당황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줄 때, 학생들이 "언니는요?"라는 다급한 외침에도 그녀는 "선실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를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게"라고 답했다. 그녀는 끝까지 승객들 탈출을 돕다가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기서 맨저 그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선장과 항해사 밑에 이처럼 훌륭한 선원이 있었다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숭고한 사명의식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겹쳐진다. 이미 전설이 된 타이태닉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 예가다. 끝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지휘하다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한 숭고한 희생정신이다. 그의 고향 리치필드에 있는 스미스 선장의 동상에 새겨진 그의 마지막 말이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Be British)."  
만약 "한국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새겨야 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 어떻게든 일등만하면 된다는 사회분위기가 선장이 빠져나오는데도 "일등이 되라(Be First)"는 웃지 못 할 넌센스(nonsense)가 아닐까! 가슴만 답답하고 어린 학생들에 미안하다.  
우리 사회의 직업의식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직(職)만 있고 업(業)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직업이라는 단어를 흔히 붙여서 쓴다. 하지만 '직'과 '업'은 엄연히 다르다. '직'은 직위 즉 자리를 말하고 '업'은 누군가에게 부여된 과업을 말한다. 사람들은 '직'

엔 관심을 기울이지만 '업'은 뒷전이다.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상불을 켜고 보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관심이 없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한다. '직' 곧 자리는 사람을 안주시킨다. 자리가 관할수록 절실한 게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하지도 않고 해도 대충한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한다. 더 하면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자리가 게으른 바보를 만든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은 '황홀한 영혼'에서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나 법인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일만 말한다."고 했다. 롤랑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불행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의 그 많은 재난사고와 각종의 위태에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인재(人災)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험할 수 많은 사건사고를 우리 모두 몸으로 깨닫고 가슴과 뇌리에 새겨야 하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우리 모두 만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재(人災)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과 부상환자들의 쾌유를 빈다.

社說

## 계획적으로 탈출한 '철면피' 선장·승무원

가슴스러운 선장과 승무원들이었다. 수백 명을 죽음에 몰아넣고 그들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맨 먼저 탈출을 감행했다. 반면, 학생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명조끼를 양보하며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해경이 사고 당시 세월호 승무원들의 탈출 장면을 찍어 28일 공개한 10분짜리 동영상에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7명이 제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있던 구명벌도 작동시키지 않고, 가장 먼저 구조정에 올라 도망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심지어 랜디 차림으로 옮겨 타는 선장이 씨의 모습도 담고 있다.  
이들은 3층 선실로 몰아가 옷을 갈아입고, 일반 승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전용통로를 이용해 구조정에 오르는 여유까지 부렸다. 신분을 속이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탈출을 한 것이다.  
비슷한 시각, 세월호에 있던 단원고의 한 학생이 촬영해 아버지에게 보낸

10분짜리 동영상에는 의지한 학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학생들은 배가 기울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서로 양보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선실에 그대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개된 두 개의 동영상은 본 국민들은 끊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다시 한 번 비통해 빠졌다. 철면피의 인간들에게 어떤 생명들을 맡겼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침몰 당시인 오전 8시58분 선장이 청해전선에 보고하는 대신 승객을 대피시켰더라면, 탈출하기까지의 2시간에 대피 및 구조에 나섰더라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게 더 원통하고 한이 맺힌다. 사법당국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 이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원혼들을 달래는 길일 것이다.

## 지방대 몰락 부르는 대학 구조개혁 안된다

지방대의 자율 정원 감축 규모 비율이 서울·수도권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마감을 앞두고 전국 56개 대학이 밝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0~4%, 지방 대학은 7~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17개 대학 가운데 6개교는 정원 감축 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반면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37개교가 10%(19개교) 또는 7%(18개교)의 '고강도'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선 순천대·목포대·동신대·호남대 등이 10%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7%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입학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혁안 역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5개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어 감축에 신중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취업불이나 학생모집 등에서 불리한 지방 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미리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방식대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면 지방대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예견된 이런 구조조정은 개혁이 아닌 개혁이 될 수도 있다. 지방대의 몰락을 막으려면 대학의 설립 목적과 지역을 고려한 차등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항상 축출하지만 어떤 것은 부드럽고, 또 어떤 것은 거칠거칠한 것. 활짝 퍼져 있고 가운데 뭉개 솟아올라 있는 것."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 이민주·현주(15·청주 맹학교 2년) 자매는 '꽃'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또 잡이 안 올 때는 "머릿속에 장풍도 책장도 없는 커다랗고 텅 빈 방을 그려 보거나, 사각사각 잘 써지는 향 좋은 연필을 한 자루씩 세거나, 아니면 폭신폭신한 솜으로 채워진 베개를 상상해요"라고 말한다.  
엄마에 대해서도 "웬지 외할머니를 닮았을 것만 같은 우리 엄마는 항상 옆으로 가방을 메고, 팔각팔각 들기 좋은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걸어간다"고 말한다. 이렇듯 사물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청성양의 성육을 통째로 거나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습에 저항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마을에서 쫓겨나가거나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힌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할례를 고수하려는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관습의 희생양이 된다. 유엔(UN)은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로 지정하여 반인권적 악습을 퇴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문화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관습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과 남성은 똑같은 인권을 갖는 존재이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고 통제되는 대상이 아니다. 할례를 한 여성은 깨끗하고 품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은 불결하고 난잡하다는 생각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의 이기심과 관련된다. 몸에 대한 결정권은 온전히 그 몸의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가장 기본을 생각해보자.

을 세상 속에 내보인 것이다.  
만개한 빗꽃잎을 들고 있는 손가락, 금붕어가 헤엄치는 어항의 기포(氣泡), 자원봉사자의 클로즈업된 눈동자 등 영글은 전혀 꾸밈이 없었다. 흔히 갖기 쉬운 '눈이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볼 수 있는' 이들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사물을 한눈에 알아보는 내 눈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미지가 시작되는 지점은 망막 위가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아이들은 내게 알려줬다."  
30대의 작가 역시 말한다.  
지난해 자매와 함께 사진 수업을 하며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고 한다. 새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미술 등 예술교육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은 '찍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전달하는 데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런 미에서 시각장애 사진작가 엘리스 윈월(미국)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시각화하는 능력을 잃지는 않았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양동욱의 S스토리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품위 있는 여자는 그런 짓 안 해!" 외칠 사이엔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남자를 집에 불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여성이 무안해하는 친구에게 화난 목소리로 던진 말이다. "품위 있는 여자도 즐길 수 있어. 그래도 품위는 지킬 수 있어."라며 어처구니없어하는 친구에게 그 여성은 "아니야. 품위 있는 여자는 그런 짓 안 해. 그곳을 잘라낸 여자만이 좋은 여자야. 이래야 결혼 전까지 처녀로 남는 거잖아. 첫날밤 남편이 실패를 풀어주잖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친구에게 "이게 정상 아니야? 너는 안 잘라 내냐? 그 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성기능이 향상된다는 이유로 포피를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포경수술이라고 한다. 포경수술이 질병 예방과 성기능의 효과에 탁월하지 감ભ은박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포경수술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의 감염을 낮춘다고 안내하고 있

## 여성 할례와 품위있는 여성

다. 하지만 대다수의 포경수술이 아동기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강요보다는 포경수술의 득과 실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제는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할례로 고통을 받는 어린 소녀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 할례(FGMC,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cutting)는 주로 사춘기 이전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음핵만을 잘라내는 것에서부터 음핵, 소음순, 대음순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절단한 뒤 소변과 월경을 배출할 수 있는 작은 구멍만을 남겨 놓고 실로 음부를 봉쇄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여성은 할례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마취도 없이, 그리고 소독조차 되지 않은 칼과 바늘로 전통수술자로 알려진 나이 든 여성에 의해 할례를 경험한다.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이 어떨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여성에게 할례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주장은 여성 할례가 3000년이 넘도록 내려온 관습이며 그 관습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 관습에는 여성의 생식기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 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사업국 2200-541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 부 2200-642	여론대책부 2200-696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